



<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

# 첨단산업 국제표준,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개발

- 국표원, 주요 선도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표준 선제적 개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중욱)은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을 통해 미·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에 나선다.

\* 「국제표준화 협력사업」 : '24년 신규사업으로 '28년까지 총 103.05억 원 지원

글로벌 선도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는 정부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 「글로벌 R&D추진전략」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23.11.27.)

우선 국내 연구기관은 기술·표준 선도국의 전문기관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이처럼 국제표준 개발과정에서 주요 국가와의 선제적 합의로 국제적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공동개발에 착수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외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계약 체결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하다. 사업내용,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중에 국표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기술표준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이룰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선제적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혁조 (043-870-5340)
	표준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김영국 (043-870-5346)